

자녀 용돈과 연성 예산제약*

이 윤 호** · 김 성 현***

논문초록

이 글은 자녀 용돈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임을 연성 예산제약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Janos Kornai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한 연성 예산제약 개념을 부모와 자녀의 용돈 문제라는 개인들간의 관계에 확장 적용하는 최초의 시도다. 그 동안 학계에서 연성 예산제약 개념은 정부 대 기업, 금융기관 대 기업 등 조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만 적용되어 왔다. 논문은 먼저 자녀의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성을 지니게 되는 조건 및 연성성을 지니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될 연성 예산제약 증후에 대해 이론 모형의 설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이 예측하는 바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는 이론적 예측의 주요 내용들을 지지하며, 자녀 용돈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핵심 주제어: 자녀 용돈, 연성 예산제약, 연성 예산제약 증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2, A14, A21, D11, D12, D14

* 저자들은 논문의 초고를 읽고 자세하고 유익한 지적들을 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논문의 내용과 체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윤호는 통계 분석 작업의 일부를 도와준 같은 학과의 장상수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 연구는 2003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책임저자인 이윤호는 재정 지원에 대하여 순천대학교에 감사를 표한다.

** 제1저자,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e-mail: yunholee@sunchon.ac.kr

*** 제2저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king0805@sunchon.ac.kr

I. 서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젊은 자녀들의 용돈 관리와 용돈 사용은 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이다. 용돈의 관리와 사용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주도적인 경제행위이다. 경제적 후견자이자 가정교육을 책임지는 부모나 그에 준하는 후견자(이하 부모로 통일하여 호칭) 들은 자신의 자녀나 피후견인(이하, 자녀로 통일하여 호칭)이 용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소비·저축의 습관을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부모들은 아마도 적당량의 용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그 돈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소비지출을 하고 나아가서 일부의 돈을 저축까지 한다면 하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대나 기준과는 다르게 용돈을 헤프게 쓰며 그 결과 용돈의 부족을 하소연하게 된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가운데 41.5%는 자주 자기의 용돈 이상으로 소비를 하며 30.6%는 종종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2006). 자녀가 용돈의 부족을 호소하게 되면 더 이상의 용돈은 없다는 사전의 엄포가 비록 있었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부모는 몇 마디 꾸지람을 곁들이거나 하면서 결국은 자식에게 용돈을 추가로 더 주게 된다. 그리고는 자식은 '귀여운 도둑'이지 하고 넘어갈 것이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용돈 관리와 사용은 바람직한 예산 관리와 소비·저축 태도의 형성이란,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화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서 학계의 반복적인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Furnham, 2001; John, 1999; Furnham and Thomas, 1984). 청소년기에 개발되고 형성되는 소비행동은 성인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쉬우며 소비자 사회화를 통해서도 완전히 변화되기가 어려운 만큼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소비 습관의 형성은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이라고 흔히 지적된다(권미화·이기춘, 2000, p. 176).

그런만큼 청소년 용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져왔다. 한편으로는, 용돈의 소비와 관리 등 청소년의 용돈 사용 행태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김영신·강선자,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김효정, 2004; 이은희·남수정, 2004; Furnham, 1999, 2001)에서부터 자녀 용돈에 대해 부모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연구(Furnham, 2001; Furnham and Thomas, 1984), 용돈 행태와 금융에 대한 이해력

간의 관계(금융감독원, 2003) 등 용돈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행해져 왔다.¹⁾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 소비행동의 합리성 및 비합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John, 1999, pp.202-204). 권미화·이기춘(2000)은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과시소비 성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권미화·이기춘, 2000, p.179).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소비행동의 비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청소년 집단의 소비행동의 비합리성으로 미루어 놓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 개개인이 또래집단의 소비행태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도 대체 또래집단은 왜 그런 비합리적 소비행동을 보이는가가 여전히 설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 또래집단은 바로 청소년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용돈 문제와 관련해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역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용돈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는 청소년 용돈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자녀의 바람직한 용돈 행태 문제는 지금껏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뚜렷한 효과 없는 청소년 용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라기보다는 청소년 용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청소년 용돈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이 연성적이게 되면 그의 경제 행태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 용돈은 전형적인 연성 예산제약의 성격을 지닌다. 부모로부터 일정 액수의 용돈을 받지만 모자라면 적지 않은 경우 부모로부터 추가로 용돈을 더 받아서 쓴다. 이런 기대가 청소년의 용돈 관리와 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 용돈 행태와 관련하여 인식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그들 용돈의 연성 예산제약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 글은 청소년 용돈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임을 연성 예산제약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2기 게임 이론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용돈의 예산제약이 연성적이 되는 조건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일 때 나타나는 행태적 특징들을 예측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성성 및 연

1) Furnham(2001)에는 자녀 용돈과 부모의 태도에 대한 각 나라의 실증적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Furnham(2001)의 p.398에 소개되고 있는 참고문헌들을 보라.

성성으로 인한 행태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장금옥(2003)은 청소년에 대한 용돈의 지급과 관리가 용돈통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용돈의 지급에 대한 기록이 관리·유지되어 청소년의 용돈 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전남 지역의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우지웅(2005)은 전국의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 용돈의 연성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²⁾ 이 연구들은 청소년 용돈이 지니는 예산제약의 연성성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엄밀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자녀 용돈의 연성 예산제약적 성격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루는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연성 예산제약의 개념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용돈 예산이 갖는 연성성 및 그것이 미치게 되는 가능한 영향을 용돈 연성 예산제약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명한다. III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 용돈의 연성성과 그것이 용돈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항 로짓 추정을 통해 조사대상 학생의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 정도를 추정하고, 연성성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연성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증후적 행태를 추정한다. IV장은 논의 및 맺는말이다. 청소년 용돈 예산의 연성성과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청소년 용돈 문제 및 용돈 교육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II. 연성예산제약과 자녀 용돈

1. 연성 예산제약과 그 증후

현실의 모든 경제행위는 예산의 제약 아래서 이루어진다. 처분 가능하도록 주어진 예산액이 지출 가능액의 경계를 설정해 준다.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무를 지며,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제주체는 더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2) 장금옥(2003)과 우지웅(2005)의 석사학위 논문은 본 논문의 책임저자인 이윤호의 지도 아래 작성되었다.

된다. 예산제약이 엄격한 지출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경성적(hard)이라고 한다.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예산제약이 연성적(soft)이라고 한다. 즉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애초의 예산제약은 제약으로서의 엄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 인해 경제주체의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ornai는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동유럽 경제체제에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설명하였다(Kornai, 1979, 1980, 1992). 현실 사회주의 기업들의 경우 예산제약 조건들이 ‘사후’에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적자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제약이 엄격한 제약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며, 이를 기대하는 사회주의 기업 경영자의 경영 행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달라질 수 있다. 연성 예산제약으로 인한 경제 행태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현상을 Kornai는 연성 예산제약 증후(soft budget constraints syndrome)라고 부르고 있다(Kornai et al., 2002).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전형적인 연성 예산제약 증후는 기업들이 생산요소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것이며 또 가격의 변화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이다. 생산요소 부족시 그 추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기관이 언제나 부담해주는 경우 사회주의 기업은 연성 예산제약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 현상과 투자 실패시 지원 기대에 따른 투자 위험의 감소로 인한 과도한 투자 성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사회주의 기업의 반응성과 가격의 신호 기능이 둔화된다. 연성 예산제약 아래 놓여 있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혁신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고 지원주체인 상급 정부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로비 행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Kornai et al., 2002, pp. 18-21).

Kornai(1979, 1980)의 초기 연구의 초점은 연성 예산제약의 원인보다는 그 영향에 두어져 있었다. 그는 연성 예산제약의 주요 원인으로서 부실기업의 정리에 따르는 해고와 실업문제,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불안을 피하려는 사회주의 정부의 온정주의와 정치적 동기를 거론하였다. 연성 예산제약 개념은 사회주의 경제가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체제가 전환되면서 정책당국자들은 연성 예산제약의 직접적인 폐기와 경성화를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즉 정책당국자가 예산제약을 경성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 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연성 예산제약 문제는 약화되

지 않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Roland, 2000, p. 214).

연성 예산제약 문제에 대한 최초의 모형화는 Schaffer(1989)에 의해 이루어졌다. Schaffer는 이 문제를 확약(commitment)의 동태적 실행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형에서는 자금 제공 기관이 왜 자금을 제공하는지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Kornai and Weibull(1983)도 역시 연성 예산제약을 모형화하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정부는 부실기업을 구제한다고 전제하고 그것이 예산제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전적 유인을 침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성 예산제약의 작용 기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모형의 제시와 연성 예산제약 개념의 명료화는 Dewatripont and Maskin(1995)에 의해 이루어졌다. Dewatripont and Maskin(1995)은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온정주의와 그 귀결의 문제가 아니며 확언의 동태적인 작동 불능과 그에 따르는 유인문제임을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연성 예산제약은 사회주의 경제와 체제전환 경제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

Dewatripont and Maskin(1995)의 모형을 통해서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기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Roland, 2000, pp. 216-217).⁴⁾ 사회에 우량 투자안과 불량 투자안이 α 와 $1 - \alpha$ 의 확률로 존재하며 모든 투자는 비가역적이라고 가정하자(〈그림 1〉 참조). 즉 이루어진 투자는 되돌릴 수 없고 매몰비용화 된다. 투자안의 우열성에 대해서 투자 당사자(기업)는 알고 있지만 투자자금 제공자는 정부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로 칭하도록 하자. 정부는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1기초에 정부는 각 투자안에 1원씩의 투자자금을 제공한다.⁵⁾ 1기 말이 되면 우량 투자 기업은 투자로부터 생겨난 화폐 수익 R_g 를 정부에 상환하며 기업은 B_g 의 이익을 차지한다. 불량 투자 기업은 1기 말이 되어 정부에 아무 것도 상환하지 못한다. 1기 말에 정부가 불량 투자 기업을 청산하게 되면 정부는 L 을 회수하게 되며 불량투자 기업은 $B_b (< 0)$ 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가 불량 투자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2기 초에 1원을 추가 투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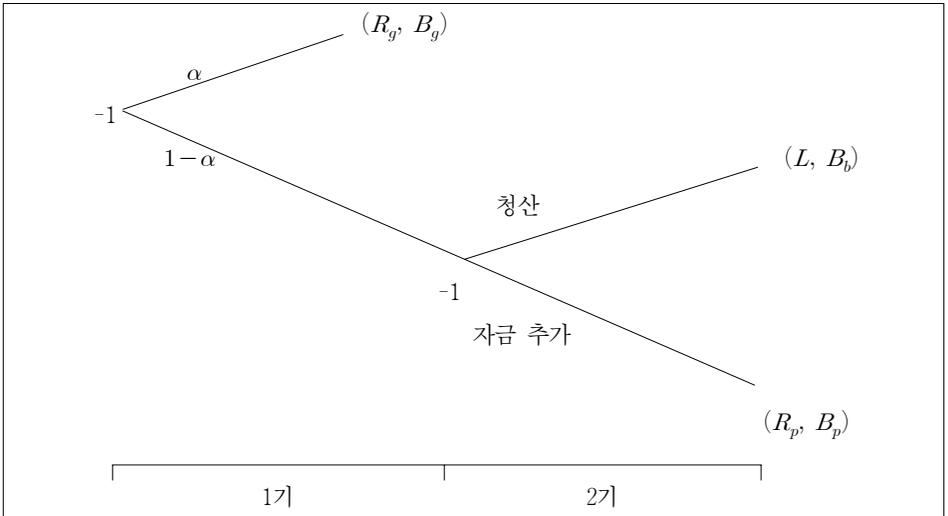
3) 기업, 은행, 정부와 관련한 연성예산제약 및 그로 인한 다양한 증후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에 대한 소개는 Kornai et al. (2002)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4) Roland(2000)는 Dewatripont and Maskin(1995)모형을 더 간략화 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Roland(2000, pp. 216-217)를 참고하여 소개한다.

5) 투자수익 R 이나 B 는 투자비용 1에 대해 정규화 되어 있다.

게 되면, 불량 투자 기업은 2기 말에 가서 정부에 R_p 를 상환하게 되고, 기업 자신은 $B_p(>0)$ 의 수익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⁶⁾ 이를 2기에 걸친 의사결정 나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의사결정 상황



정부는 투자안 판단시 투자회수율 R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 B 까지도 계산에 넣어 투자자금의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B 는 Kornai가 초기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실업 발생의 방지라는 정부의 온정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기업의 모든 화폐적 수익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기업 경영자는 오직 기업이 차지하는 수익 B 에만 관심이 있다.

기업이 언제나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으면 기업은 연성 예산제약을 갖는다. 1기 말에 청산이 되어야 할 불량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불량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시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를 실행에 옮길 경우 유인 문제 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게 된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B_b < 0, B_p > 0$ 로서 청산보다는 언제나 자금의 추가적인 조달이 유리한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자금을 추가 조달하려 하게 된다. 1기 초에 투입된 투자자금 1은 2기

6) 여기서 R_p 와 B_p 는 이미 할인이 이루어져 있는 수치다.

초에는 이미 매몰비용화 되어 있으므로, 2기 초 자금의 추가 제공시의 사회적 순이익 $R_p + B_p - 1$ ⁷⁾ 이 청산시의 사회적 이익 $L + B_b$ 보다 크면 정부는 자금을 추가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몰비용까지 고려하여 $R_p + B_p < 2$ 이면 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사전적으로 보자면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즉 1기 초 사전적으로 평가할 때 이 투자는 집행되지 말았어야 할 투자이다. 그렇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 놓여 있는 정부로서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자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안의 우열성을 사전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정부로서는

$$\alpha(R_g + B_g - 1) + (1 - \alpha)(R_p + B_p - 2) > 0. \quad (1)$$

의 조건이 성립하면, 즉 투자안이 우량 투자안일 확률 α 값이 식 (1)의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임계치 α^* ⁸⁾ 이상으로 크지만 하면, ‘모든’ 투자안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즉 모든 투자안이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고, 정부는 모든 투자안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2기 초에 가면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는 모든 우량 기업은 물론이고 불량 투자 기업에 대해 자금의 추가 제공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기업이 불량 투자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이유는 비록 정부가 불량 투자에 대해 자금의 추가 제공이 없다는 공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기 초가 되어 투자안에 대한 자금의 추가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1기에서의 투자액은 매몰비용이 되고, 정부는 오로지 2기 초의 추가 투자에 따르는 기대 순이익 $R_g + B_g - 1$ 과 청산시의 이익 $L + B_b$ 만을 비교할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전적으로 보자면 비효율적인 투자안에 대한 자금의 추가 제공이 사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정부가 청산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들을 규율하

7) $R_p + B_p$ 는 자금 1이 추가로 제공되어 불량 투자 기업이 2기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다. 1기에서 기 투입된 투자자금 1은 매몰비용으로서 2기 초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따라서 2기 초 불량 투자 기업의 순기대이익은 $R_p + B_p - 2$ 가 아니라 $R_p + B_p - 1$ 이 된다.

8) 식 (1)을 등식으로 만족시키는 α 의 값 $\alpha^* = \frac{(2 - R_p - B_p)}{(R_g + B_g - R_p - B_p + 1)}$ 이 임계치다.

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의 공언은 신뢰성을 지니지 못한다.

연성 예산제약 증후는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할 때 구제 받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고 그런 기대가 행태에 영향을 미칠 때 작동하게 된다. 그런 기대는 사회의 집단적인 경험과 관계가 깊다. Kornai는 연성 예산제약 증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정서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사회적 제도들이 연성 예산제약 증후의 기본적인 특징임을 지적하고 있다(Kornai et al., 2002, pp.16-17; Kornai, 1998, pp. 14-15).⁹⁾

2. 자녀 용돈의 연성 예산제약적 성격

Kornai(1998)는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조건 내지 환경을 수직적 관계에서 찾고 있다. 즉 쌍방 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우위적 위치에 그리고 다른 한 쪽이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것이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연성 예산제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정부 대 기업, 금융기관 대 기업, 기업집단 대 계열사 등 지금까지는 조직과 조직간의 문제에 국한되어 왔다.¹⁰⁾ Kornai는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예를 들어, 복지 제공기관과 복지 수혜자 개인의 관계에서처럼 조직과 개인간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Kornai et al., 2002, p.6의 주석).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연성 예산제약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까? 부모와 자식간의 경제적 관계, 특히 부모와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자녀간에서 연성 예산제약 현상과 그로 인한 증후가 전형적으로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일어나리라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착안점이다. 사실, 연성 예산제약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의 하나인 온정주의는 사회주의 정부 대 사회주의 기업간의 관계에서 흔하게 관찰되지만, 부모와 자식간에 더욱 지배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제적

9) Dewatripont and Maskin(1995)의 모형에서 보자면, α 와 B_p 값이 부실기관 구제의 사회적 역사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다.

10) 예를 들어, Dewatripont and Maskin(1995)은 자금의 독점적 제공자인 은행과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Qian(1994)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를 다루고 있다.

관계가 될 것임을 paternalism이라는 영어 표현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부모는 지배적인 위치에, 자녀는 종속적인 위치에 선다. 결국, 이 논문은 청소년의 용돈 문제를 연성 예산제약의 관점에서 이론 모형의 설정을 통해 분석, 흥미하고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연성 예산제약 개념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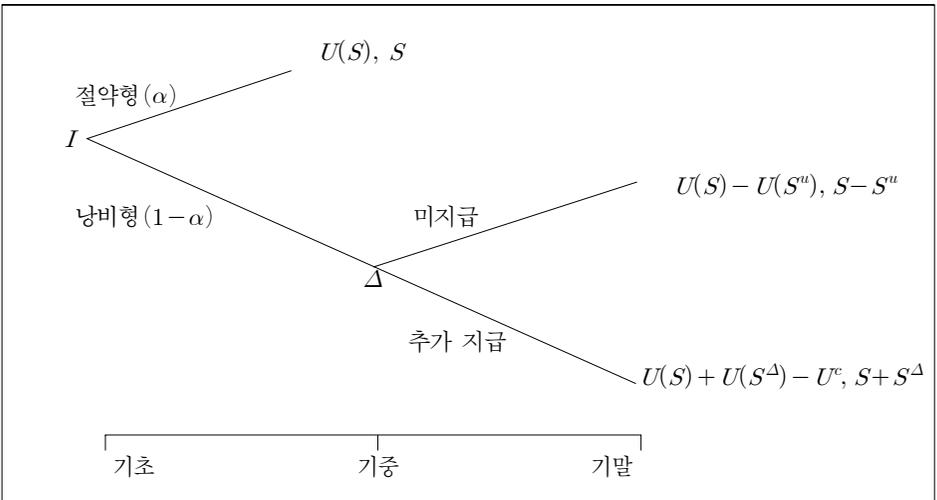
거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미성숙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자식 자체를 방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본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외적으로는 윤리적 비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재까지 받게 된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부모의 비효용이 크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거의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대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그 동안의 관계, 특히 용돈을 둘러싼 반복적인 금전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인되어 있는 것이기 쉽다. 부모와 자녀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특한 자녀가 비록 아닐지라도, 자신의 용돈 부족시 부모가 추가적으로 용돈을 주는 경험이 반복될 경우, 자녀는 용돈의 관리와 사용에서 연성 예산제약 증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용돈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해진 용돈 이상의 추가적인 용돈은 없다는 부모의 경고는 이행될 수 없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부모의 그 같은 확언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이 낮은 언행으로 자식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Dewatripont and Maskin(1995) 과 Roland(2000)의 모형을 준용하여 자녀 용돈의 연성 예산제약 문제를 2기 게임 모형으로 형식화시킨 후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기초에 부모는 기말까지 쓴다는 계약 하에 자녀에게 용돈 I 를 지급한다고 하자(〈그림 2〉 참조).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게 될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자. 기중에 자녀가 용돈 Δ 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 - 이런 자녀를 낭비형 자녀라 부르자 - 이에 대해 부모는 용돈의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낭비형 자녀는 추가로 용돈을 받아 더 쓰게 되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말까지 지내게 된다. 기초에 받은 용돈을 정해진 기말까지 사용하는 자녀 - 이를 절약형 자녀라고 부르자 - 는 물론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기초든 기중이든 용돈의 지급시 부모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기중에 자녀에게 추가 용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에 준 용돈은 매물비용이 되며 오로지 추가 용돈만이 비용으로서 고려될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부모-자녀 간 용돈 문제를 아래의 <그림 2>에서처럼 기초-기중-기말의 2기 게임으로 형식화할 수 있다.

<그림 2> 부모와 자녀간의 용돈 수수 의사결정 나무



절약형 자녀는 기간 동안 부모가 준 용돈의 범위 내에서 용돈을 사용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돈 I 를 받음으로써 얻는 만족을 S 라 하고, 자녀의 만족 S 를 보고 부모가 느끼는 만족을 $U(S)$ 라 하자.¹¹⁾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 I 를 지급하고 효용 $U(S)$ 를 얻는다. 그리고 용돈 I 의 지급에 따라 부모는 그 만큼 자신의 소비에 산이 줄고 그로 인해 그의 효용은 $U(I)$ 만큼 줄어든다. 한편 낭비형 자녀는 기중에

11) S 와 $U(S)$ 는 각각 자녀와 부모의 효용함수다. S 는 $U(I)$ 의 축약 표현이다. S 와 $U(S)$ 는 효용함수에 대한 일반적 가정, 즉 $dS/dI, dU/dI, dU/dS > 0$ 및 $d^2S/dI^2, d^2U/dI^2 < 0$ 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S 와 $U(S)$ 의 관계, 즉 dU/dS 는 증가 관계를 가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자녀의 만족이 클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만족감도 커진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d^2U/dS^2 의 부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2계 미분의 부호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논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추가로 용돈을 요구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추가적인 용돈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게 되면 부모는 추가적인 지출 부담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의 소비예산 감소로 인한 비효용의 크기는 $U(I)$ 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용돈이 부족한 자식이 그로 인해 겪게 될 불편이나 불이익의 크기를 S'' 라 하면, 추가 용돈을 못 받은 자녀의 2기 동안의 총 만족 크기는 $S - S''$ 가 되고 그에 대해 부모가 느끼게 되는 총 효용은 $U(S) - U(S'')U$ 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녀의 추가 용돈 요구에 응해 부모가 용돈을 Δ 만큼 추가로 주게 될 때, 그로부터 자녀가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S^A 라고 하자. 그러면 자녀의 만족은 기존의 S 에 S^A 가 추가되어 총 $S + S^A$ 가 된다. 그로부터 부모가 느끼게 되는 만족은 $U(S) + U(S^A)$ 가 되며, 그 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부모에게 더해지고 그로 인한 부모의 비효용의 크기는 $U(I)$ 에서 $U(I + \Delta)$ 로 커지게 된다.¹²⁾ 아울러 부모는 용돈의 추가 지급이 자녀의 소비 습관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 우려는 부모에게는 비효용이 된다. 이 비효용의 크기를 U^c 라고 하면, 용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느끼는 만족은 $U(S^A) - U^c$ 로 표현될 것이다.

〈그림 2〉에서 α 는 자신의 자녀가 절약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주관적 확률이다. 부모는 자녀가 임의의 기에 절약형이 될지 낭비형이 될지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alpha[U(S) + S - U(I)] + (1 - \alpha)[U(S) + U(S^A) - U^c + S + S^A - U(I + \Delta)] > 0 \quad (2)$$

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녀가 절약형인가 낭비형인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자녀에게

12) 자녀가 추가 용돈 Δ 를 받았을 때 그의 효용은 $S + S^A$ 처럼 가산적 형태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U(S + S^A)$ 가 아니라 $U(S) + U(S^A)$ 로 가정한다. 이는 용돈을 주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 각각이 기초에 용돈을 주고 받으며 느끼는 만족과 시간이 지나서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주고받으며 얻게 되는 추가적인 만족은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주는 용돈에 따른 부모의 비효용은 $U(I) + U(\Delta)$ 처럼 가산적이라기보다는 $U(I + \Delta)$ 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우 소득의 한계효용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체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돈을 지급하게 된다. 나아가서, 낭비형 자녀의 경우 추가로 용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므로 언제나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추가로 용돈을 요구할 때 부모로서는 기초에 지급한 용돈은 매몰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돈의 지급에 따르는 효용과 비용만을 따지게 된다. 용돈 추가 지급시의 순이득 $U(S) + U(S^A) - U^c + S + S^A - U(\Delta)$ 가 미지급시의 순이득 $U(S) - U(S^u) + S - S^u$ 보다 크기만 하면 부모는 추가로 용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U(S) + U(S^A) - U^c + S + S^A < U(I + \Delta)$ 이면 이 추가적인 용돈 지급은 사전적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된다. 즉 부모는 기초에 아예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초에 용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용돈계약이 연성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위의 식 (2)를 만족시키는 임계치 α^* 는 식 (3) 또는 동일하게 (3')과 같다.

$$\alpha^* = \frac{U(I + \Delta) - U(S) - U(S^A) + U^c - S - S^A}{U(I + \Delta) - U(I) - U(S^A) + U^c - S^A} \tag{3}$$

$$\alpha^* = \frac{[U(S) + S + U(S^A) - U^c + S^A] - U(I + \Delta)}{[U(S^A) - U^c + S^A] - [U(I + \Delta) - U(I)]} \tag{3'}$$

부모는 자녀가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주관적 확률값 α 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값이 α^* 보다 크면, 기초에 자녀는 언제나 용돈을 받고 낭비형 자녀일 경우에는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부모는 언제나 그 요구에 응하게 된다. 즉 자녀 용돈이 연성 예산계약이 되는 것이다. 실제의 α 값이 α^* 보다 작으면 부모는 연성 예산계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는 작은 α^* 값을 갖게 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기중에 용돈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기초에 소정의 용돈을 주게 되고 자녀의 용돈예산은 연성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3')에서 분자의 첫 번째 대괄호 [] 안에 있는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 용돈까지 주어 그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얻게 되는 만족의 합계를, 뒤의 $-U(I + \Delta)$ 는 자녀에게 용돈을 $I + \Delta$ 만큼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느끼게 되는 비효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자 전체로는 용돈 $I + \Delta$ 의 수수료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얻

게 되는 순만족을 뜻한다. 분모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추가로 Δ 를 지급할 때 부모와 자녀가 얻게 되는 순만족이다. 그러므로 α^* 값은 분자가 작을수록 그리고 분모가 클수록 커진다. 즉 추가 용돈으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얻는 추가 순만족에 대해 추가 용돈까지 지급할 경우의 총 용돈 지급 $I + \Delta$ 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얻는 순만족의 비율이 높을 때 α^* 값은 커진다.

어떤 경우에 부모는 작은 α^* 값을 갖게 될까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 자녀의 용돈 요구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비교정태 분석을 위의 임계치 α^* 에 대한 편미분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먼저, 식 (3')을 U^c 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양의 부호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용돈 추가 요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α^* 값은 커지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 부모가 자녀의 추가 용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식이 느끼는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심정적으로 전이되는 $U(S)$ 와 $U(S^A)$ 는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이며 그 크기가 부모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일정 I 에 대한 S 가 클수록 그리고 일정 Δ 에 대한 $S\Delta$ 가 클수록, $U(S)$ 와 $U(S^A)$ 가 각각 S 와 S^A 와 비감소의 관계에 있다면, α^* 는 S 와 S^A 에 대해 음의 관계를 갖는다. 즉 S 와 S^A 가 클수록 α^* 값은 작아지고, 자녀의 용돈 예산은 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용돈이 자녀에게 주는 효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자신의 만족도 커진다면 부모는 자녀의 용돈 추가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자녀의 용돈 추가 지급 요구가 강할수록, 자녀가 때를 강하게 쓸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는 추가로 용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 (3')을 Δ 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추가 용돈 지급에 따르는 부모의 한계 비효용이 추가 용돈 지급으로부터 얻는 부모와 자식의 한계 효용보다 큰 부모의 경우에, Δ 값이 클수록 α^* 값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런데 추가로 지급

13) $\frac{\partial \alpha^*}{\partial \Delta} = [U(I) - U(S) - S]^* \left[\frac{\partial U(S)}{\partial S^A} + S^A - U_\Delta(I + \Delta) \right]^* \frac{1}{[\text{식 (3)의 분모}]}$. 하첨자는 그 첨자로 편미분되었음을 뜻한다. 재론의 여지없이, '용돈을 주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U(S) + S > U(I)$ 다. $\frac{\partial U(S^A)}{\partial S^A} + S^A - U_\Delta(I + \Delta)$ 가 음이면 $\frac{\partial \alpha^*}{\partial \Delta}$ 는 양의 부호를 갖게 된다.

하는 용돈의 한계 비효용의 절대 크기 $U_{\Delta}(I+\Delta)$ 는, 효용함수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소득이 적은 부모에게서 클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α^* 값이 크고 그런 집의 자녀일수록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이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한 자녀가 가정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그들은 절약형 자녀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추가 지급 용돈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자녀의 용돈제약이 연성성을 지니게 만드는 요인들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라면, 자녀의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성을 지니게 될 때 자녀의 용돈 관련 행태가 어떤 특징적 증후들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는 달리 검토되어야 할 주제이다.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성을 지니는 자녀가 보이는 행태적 특징을, Kornai가 말하는 연성 예산제약 증후에 빗대어 ‘용돈 연성 예산제약 증후’(이하, 줄여서 연성 증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낭비형 자녀의 용돈 사용 액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낭비형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같은 증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결과로 인해 연성 증후가 강한 자녀일수록 용돈의 사용과 관련해 자신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유형이라고 자기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Dewatripont and Maskin(1995)과 Roland(2000)의 모형을 준용하여 자녀 용돈의 연성성에 관한 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몇 가지 이론적 예측을 행하였다. 분석을 마치면서 이론 모형의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ewatripont and Maskin(1995) 및 Roland(2000)의 모형과 우리의 모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및 보수가 전자에서는 관찰 가능한 금액 및 수익률로 표현되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주관적 효용과 비효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물론 후자가 훨씬 관찰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에서 보듯이, 몇 가지 이론적 예측들에 대해 적절한 대리변수들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형 모형들과 우리 모형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크다. 지원자와 수혜자라는 수직적 관계, 양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매몰비용의 존재 등 연성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및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같다.

Dewatripont and Maskin (1995) 모형에서는 단일의 대규모 은행이 자금의 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복수의 소규모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매물 비용이 불리일으키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본다면, 먼저 우리의 모형의 특징적 측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복수적일 수 없으며, 나아가서 용돈을 주는 보호자가 복수일 때 그들간의 정보소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 용돈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불완전하게 되고 그 결과 연성성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Dewatripont and Maskin (1995) 은 은행이 자금 수요에 비해 대부 여력이 풍부할 때 또는 대규모일 때 연성 예산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모형에서 보자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대응된다. 자녀의 용돈 크기에 비해 경제적 형편이 충분히 넉넉한 가정에서 자녀 용돈의 연성성 문제가 일어나게 됨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전형적인 연성 예산제약 증후는 기업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 둔감해지면서 생산요소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사회주의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혁신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고 지원주체인 상급 정부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로비 행위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Kornai et al., 2002, pp. 18-21). 부모와 자녀간에 용돈을 둘러싼 연성 예산제약 증후도 이에 대응되어 설명될 수 있다. 연성 예산제약 하의 자녀는 만성적으로 용돈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용돈을 줄여서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돈을 더 타내기 위해 부모의 눈치를 보며 애교를 떨거나 또는 때를 쓰는데 더 주력할 것이다.

Ⅲ. 실증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 용돈의 연성 예산제약적 성격을 갖게 되는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에 이어,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고3 학생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5월과 6월 중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학교는 지역간 상대적 인구분포,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

문계와 실업계의 구성비를 반영하여 전국의 17개 중고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14) 층화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17개 학교 각각에서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교실에서 교사의 입회 아래 설문지가 배부되고 설문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기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672부가 배포되었다.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자수는 1,491명으로 유효 응답률은 89.2%이다. 유효 응답자중 용돈을 받는 학생수는 1,287명으로 유효 응답자의 86.3%를 차지하며, 실증분석은 용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용돈을 받는 학생의 구성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680명 및 607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589명과 698명이다. 고등학생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분석 결과 두 집단간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통계분석에서는 고등학생을 동일한 집단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거주지는 광역 대도시 683명(53.1%), 중소도시 433명(33.6%), 군 단위 농어촌 지역 171명(13.3%)으로 분포되어 있다(〈표 1〉 참조). 5단계로 구분한 자기 집의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평가는 상층 2.8%, 중상층 19.2%, 중중층 55.5%, 중하층 19.4%, 하층 3.1%로서, 중중층에 밀집해 있으며 대칭에 근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5)

설문지는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1부터 문항7까지는 응답자 학생의 신원 및 사회경제적 상태를 묻고 있다. 문항7부터 문항18은 응답자의 용돈 액수, 용돈 받는 주기 등 용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이며, 문항19부터 문항30까지는 용돈의 보관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문항31부터 문항38까지는 응답자의 용돈

14) 조사 대상학교의 지역 분포는 서울(중학교 2, 고등학교 2; 강남지역 2, 비강남지역 2), 경기(중학교 1, 고등학교 2), 부산(중학교1, 고등학교 1), 대전(중학교 1), 광주(고등학교 1), 전남(중학교 3, 고등학교 1), 경북(중학교 1, 고등학교 1)이다. 군 단위 이하 농촌 지역은 전남과 경북으로 한정되어 있다.

15) 자산이나 가구소득 등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계층 구분에 비해 계층에 대한 개개인의 소속감은 계층의식으로 표현된다. 계층의식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데, 그 특징은 중상층 귀속의식이 주류를 이루고 계층구조 인식은 흔히 마름모꼴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권중(2002)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 수준 5분위 분류에서 상위 1분위의 60%가 자신을 중상층으로, 최하위인 5분위의 25%만이 자신을 하층이라고 답하고 있다. 본 설문에서도 학생들의 계층의식 분포는 중상층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마름모꼴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한 이하의 분석 및 해석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산 분포와 계층의식 분포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조권중(2002)의 〈그림 3〉 참조.

관리 행태와 그에 대한 자기 평가,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이 용돈 관리 및 소비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설문들이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680	52.8
	여자	607	47.2
학교급	중학교	589	45.8
	고등학교	698	54.2
학교 소재지	광역시·도	683	53.1
	중소도시	433	33.6
	농어촌	171	13.3
아버지의 최종 학력	대졸 이상	544	42.3
	고졸	598	46.5
	중졸 이하	145	11.3
어머니의 최종 학력	대졸 이상	343	26.7
	고졸	792	61.5
	중졸 이하	152	11.8
가계 경제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상	36	2.8
	중상	247	19.2
	중중	714	55.5
	중하	250	19.4
	하	40	3.1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학생의 용돈의 예산제약이 경성인가 아니면 연성인가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관심 사항이 되기도 하려니와, 분석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변수로서 확인되고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 자료이다. 학생이 용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 처하고 있는 예산제약이 연성인가 경성인가에 대한 평가는 용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물음으로써 확인하였다.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①저축한 돈을 꺼내 쓴다 ②친구에게 빌려 쓴다 ③모자라는 대로 참고 지낸다 ④다음 달 용돈을 미리 받아서 쓴다 ⑤부모에게 이유나 핑계를 대고 더 받아서 쓴다’와 같이 5개항 설문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①, ②, ③항 응답자는 자신의 지출을 자신의 용돈 예산제약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로 보고 경성으로 분류하고, ⑤항 응답자는 연성으로 분류하였다. ④항 응답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받아서 쓴 경우, 다음 달 타게 되는 용돈의 크기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미리 받아 쓴 만큼 줄어든다고 응답한 학생은 경성 예산제약의 경우로, 다소 줄어들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연성 예산제약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36.8%의 학생들은 용돈이 부족할 때 부족분의 전부나 일부를 부모로부터 더 타내는 연성 예산제약 상황 하에서 용돈을 관리, 지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연성성 및 연성 증후에 대한 추정

이론적 가설에 대한 검정은 먼저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이용한 회귀 추정을 통해 학생의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적이 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 한다. 다음으로, 이 같은 통계적 분석으로부터 각 학생의 연성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추정치가 결과로서 얻어지게 되는데, 이 연성성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학생의 연성 증후가 유의하게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회귀 추정을 통해 연성성에 대한 추정치 \hat{y} 를 얻고, 다음으로 \hat{y} 를 설명변수로 하고 관심 대상이 되는 연성 증후 변수 z 각각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추정을 행하게 된다. 이를 형식적으로 표현하자면,

$$\hat{y} = f(X), \text{ 여기서 } X \text{는 설명변수 벡터}$$

$$z = g(\hat{y}, Y) + e, \text{ 여기서 } Y \text{는 } \hat{y} \text{ 이외의 여타 설명변수 벡터, } e \text{는 잔차항}$$

와 같다.

1)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에 대한 추정

각 학생의 용돈 예산제약은 경성 아니면 연성이라는 두 값 가운데 하나의 값을 갖는 것으로 관찰된다. 피설명변수가 2항 변수일 때 선형 확률 모형은 몇 가지 명백한 문제점을 갖는다(이종원, 1994, 531-535).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모형의 하나가 2항 로짓 확률 모형(binary logit probability model)이다. 로짓 확률 모형의 경우 피설명변수의 누적 확률분포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설정된다.

설문자료에서, 예산제약이 연성인 비율은 0.3675, 경성인 비율은 0.6325다. 상수항만을 투입해 로짓 추정을 하게 되면 평균 연성성 값은 0.3675이고 분류 기준은 0.5이므로, 경성인가 연성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관찰치는 상수항 로짓 모형에 의해 경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正) 분류율(percentage of correct classification)은 63.3%가 된다. 상수항만 있는 로짓 모형(귀무가설)의 Wald 추정치는 68.703으로, 귀무가설은 0.0%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용돈 예산의 연성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로서는 성별, 학교급 등의 인구지리 변수;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 용돈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인가, 용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용돈 사용에 대한 부모의 훈계나 간섭 정도 등과 같은 용돈 관리 행태 변수; 추가 용돈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가에 대한 학생의 인식 여부, 용돈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훈계를 대하는 학생의 태도와 같은 태도 변수 등 총 9개가 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훈계와 간섭 정도는 구간 변수(interval variable) 또는 서열 변수(ordinal variable)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성별, 학교급, 용돈을 관리하는 사람, 용돈 주는 사람, 추가 용돈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가에 대한 학생의 인식 여부, 훈계 받는 학생의 태도 등의 변수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성 증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용돈의 액수, 용돈 액수에 대해 만족해 하는 정도, 용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스스로를 즉흥적 혹은 계획적 유형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자기 평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전자의 2 변수는 구간 변수 또는 서열 변수며 나머지 변수는 범주형 변수다.

용돈 예산의 연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설문조사 항목들을 설명변수의 후보 변수로 투입하였다.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을 설명하는 최적의 추정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 상수항만 있는 로짓 모형에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변수들을 차례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conditional forward selection)으로 추정 작업을 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에서 5 단계에 걸쳐 유의한 설명변수들이 차례로 선택되어 모형에 추가되고 추정 작업이 종료되었다. 용돈을 주는 사람, 용돈에 대한 간섭 정도, 누가 용돈을 관리하는가의 세 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연성성을 설명하는 변수에서 탈락되었다.

추정 모형에 선택되어 들어간,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을 설명하는 변수 및 연성 증후가 측정되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용

돈 예산이 연성인 학생의 비율은 관찰표본의 36.75%며, 남학생이 47.16%, 혼계시 수용 태도는 반성한다는 비율이 57.12%, 잔소리로 흘러든다는 비율이 42.88% 등이다.

〈표2〉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¹⁶⁾

최소값과 최대값은 최소 및 최대 문항 번호를 의미한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문항번호를 실수인 것처럼 처리하여 얻어진 수치다.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2; 학교급은 중학교가 1, 고등학교가 2;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3; 스스로 평가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하 1, 중하 2, 중중 3, 중상 4, 상 5; 부모의 혼계와 간섭 정도는 안 한다 1, 드물게 한다 2, 자주 한다 3; 용돈 액수는 2만원 미만 1, 2-4만원 2, 4-7만원 3, 7-10만원 4, 10-15만원 5, 15만원 이상 6; 용돈 크기에 대한 생각은 부족 1, 적당 2, 충분 3; 부모의 혼계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반성하는 태도 1, 잔소리로 흘러드는 태도 2; 용돈을 더 타서 쓰는 것이 가계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의 인식은 준다고 인식 1, 안 준다고 인식 2; 용돈의 관리와 사용과 관련한 자기 평가는 계획적인 편 1, 즉흥적인 편 2; 용돈의 결산 여부는 안 한다 1, 한다 2.

	관찰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성성	1287	0	1	0.3675	0.48232
성별	1287	1	2	1.4716	0.49939
학교급	1287	1	3	1.7382	0.76508
아버지 학력	1287	1	3	1.6900	0.66301
가정의 경제수준	1287	1	5	3.0085	0.78917
부모의 혼계와 간섭 정도	1287	1	3	1.8695	0.68309
용돈 액수	1287	1	6	4.7941	1.08948
용돈에 대한 만족도	1287	1	3	2.0427	0.70361
혼계시 수용 태도	1166	1	2	1.4288	0.49512
가계에 주는 영향	1287	1	2	1.4320	0.49555
자기 평가	1287	1	2	1.6869	0.46395
용돈의 결산 여부	1283	1	2	1.7553	0.43010

연성성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는 아래의 〈표 3〉 및 〈표 4〉와 같다. 추정 모형의 χ^2 값은 100.842으로서 모형은 0.0% 수준에서 적합하다. Hosmer and Lemeshow 적합도 검정에서 χ^2 값은 4.400으로서 유의도는 0.819다. 이는 피설명변수의 관찰치와 예측치들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며 모형의 추정치가 자료와 유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 로짓

16) 각 설문에 대한 답항별 분포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부록〉을 참조할 것.

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공동 설명력은 Cox & Snell R^2 값으로 0.083, Nagelkerke R^2 값으로 0.113이다.¹⁷⁾ 최적 추정 모형에 의한 관찰치의 분류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최적 로짓 추정 모형의 총 정 분류율은 66.2%로서 상수항만 있는 로짓 모형에서의 63.3%에 비해 2.9% 포인트가 향상되었다. 추정 모형이 경성의 예산제약을 경성으로 옳게 분류하는 비율은 84.0%, 연성을 연성으로 옳게 분류하는 비율은 37.0%다.¹⁸⁾

<표 3> 로짓 확률 추정 모형에 의한 분류 결과

(단위: 명, %)

		모형의 예측치		
		경성	연성	정 분류율
관찰치	경성	608	116	84.0
	연성	277	163	37.0
총 정 분류율				66.2

최적으로 추정된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관찰치에 대해서 모형에서 추정된 y 값은 로짓(logit)이라 불리는 값이다.¹⁹⁾ 추정 결과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모가 용돈의 사용에 대해 훈계할 때 반성하는 학생보다 잔소리로 흘러드는 학생의 용돈 예산이 연성성이 될 확률이 더 크다. 성별 변수, 학교급 변수, 부모의 훈계를 듣는 태도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0.6 안팎이며, 아버지 학력과 가정 경제수준 변수의 추정계수치는 0.256, 0.299이다. 추정 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간의 상관계수 값이 0.341로서 가장 컸다.

17) 로짓 확률 모형에서의 Cox & Snell R^2 , Nagelkerke R^2 는 보통 선형 회귀에서의 R^2 에 해당한다.

18) 관측치 분류 그래프는 논문 말미의 <부록>을 참조.

19) 로짓 $L_i = \ln\left[\frac{P_i}{1-P_i}\right] = a + b'X_i$. 여기서 \ln 은 자연대수, P 는 연성일 확률, i 는 관찰치 번호, a 는 상수항, b 는 추정계수 벡터, X_i 는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냄. 추정된 로짓 L_i 값이 클수록 P_i 값이 커지는 관계임.

〈표 4〉 용돈 예산의 연성성에 대한 로짓 확률 모형 추정 결과

추정에 투입되는 피설명변수의 관찰치는 용돈 예산이 연성인가($y = 1$) 경성인가($y = 0$)임. 추정된 y 값은 로짓(logit) 값임. 총 9개 설명변수에 대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도가 0.05 이하일 때 모형에 추가하며 조건부 파라미터 추정치에 근거한 우도비 추정치 값이 0.1보다 클 때 소거하는 기준으로 설명변수의 투입 및 소거 여부를 결정. 설명변수 가운데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용돈 수령 주기, 용돈 액수, 뜻밖에 생긴 용돈의 처리는 구간 변수이며, 성별, 학교급, 훈계 받는 태도,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에 대한 자기 평가, 용돈 사용에 대한 결산을 행하는가 등의 변수는 범주형 변수임. 관찰수 1168개.

변수명	추정계수	Wald 값	유의도
성별(여자)	0.681	28.787	0.000
학교급(고등학생)	0.586	20.375	0.010
아버지 학력	0.256	6.227	0.013
가정 경제수준	0.299	11.484	0.001
부모 훈계시 태도(흘려듣기)	0.625	24.135	0.000
상수항	-4.823	100.818	0.000

통계적 적합도 및 설명력: $\chi^2=100.842(p=0.000)$, Cox & Snell $R^2=0.083$, Nagelkerke $R^2=0.113$

연성성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이 되는 사항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추정 결과 가정 경제수준의 회귀계수 값은 0.299로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용돈이 연성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미 이론 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추가 지급 용돈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며, 그로 인해 이론 모형에서의 α^* 값이 작아지고 그런 집의 자녀일수록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됨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증 분석의 결과는 이를 분명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부모가 용돈과 관련해 자녀에게 훈계나 간섭을 할 때 그것을 잔소리로 흘려듣는 자녀의 경우가 반성하는 자세로 듣는 자녀의 경우에 비해 용돈의 연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 아니라 추정 회귀계수의 값이 0.625로서 가정 경제수준의 0.299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아래의 〈표 5〉에서 보듯이, 용돈에 관해 훈계나 간섭을 받을 때의 느낌을 묻는 설문에 대해 부모의 훈계와 간섭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부모의 훈계와 간섭을 잔소리로 흘려듣는다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훈계와 간섭이 잦을수록 그에 대해 자녀는 잔소리로 흘러드는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용돈 관리와 사용에 대한 부모의 언어적 훈육은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녀가 그것을 잔소리로 흘러들게 되는 역작용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는 자녀 용돈의 사용에 대해 말을 아껴야 하며 어떤 기회에 확실하게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자녀의 용돈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간섭 횟수와 자녀가 받는 느낌

(단위: 명, %)

		부모의 훈계와 간섭 횟수			계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 한다	
훈계 받을 때 학생의 느낌	반성한다	109(48.2)	382(58.1)	175(62.1)	666(57.1)
	잔소리로 듣는다	117(51.8)	276(41.9)	107(37.9)	500(42.9)
	계	226(100.0)	658(100.0)	282(100.0)	1166(100.0)

χ^2 검정: $\chi^2_{값} = 10.333$, 점근적 유의도(양측 검정) $p = 0.006$

2) 연성 증후에 대한 실증 분석

연성성에 대한 로짓 확률 모형 추정을 통해 연성성에 대한 추정치를 얻었다. 이 제는 이 연성성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학생의 연성 증후가 유의하게 설명되는 지를 확인할 차례다. 용돈의 액수, 용돈 액수에 대해 만족해 하는 정도, 용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스스로를 즉흥적 혹은 계획적 유형 가운데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자기 평가의 세 항목을 통해 연성 증후가 연성성 추정치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먼저, 연성 증후의 낭비형 자녀의 용돈 사용 액수는, 소득 수준 등 다른 조건이 통제된다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성성이 강한 자녀일수록 추가로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용돈 사용 액수가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의 분석을 통해 얻은 연성성 추정치(연성성 E)를 설명변수로 하여 용돈 액수를 다중 회귀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²⁰⁾ 모

20)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피설명변수를 설명하려는 회귀 추정에서는 추정식들의 잔차항 간의 공분산을 조정해주는 GLS 추정의 일종인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적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추정식들의 설명변수가 경우에

형1은 연성성E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얻어진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성성E 변수의 추정계수는 2.024로서 0.0%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연성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용돈 사용 액수가 커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다. 모형2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변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연성성과 용돈 액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즉, <표 4>의 모형에서 가정의 경제수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변수로만 연성성을 추정(이를 ‘연성성Em’으로 표현하자) 한 후, 가정의 경제수준을 모형에서 직접 통제한 상태에서 용돈 액수와 연성성Em 변수와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수정 R2 기준으로 0.071에서 0.077로 다소 높아졌으며, 연성성Em과 경제수준 변수 모두 0.0%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연성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용돈 사용 액수가 커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가 관찰된다.

<표 6> 용돈 사용 액수에서 나타나는 연성 증후에 대한 추정

피설명변수는 구간 변수의 성격을 갖는 용돈 액수임. 모형1에는 <표 4>의 회귀모형에서 얻어진 연성성 추정치(연성성E)가 설명변수로 투입. 모형2는 가정의 경제수준 변수를 뺀 나머지 4개 변수만을 사용하여 얻어진 연성성 추정치(연성성Em)에다 경제수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통 최소 상승 추정한 결과임. 각 모형에는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수항은 0.0% 수준에서 유의. 관찰수 1161개.

변수명	모형1	모형2
연성성E	2.024 (9.510) ***	
연성성Em		1.654 (7.445) ***
가정의 경제수준		0.227 (5.738) ***
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F=90.346***, 수정 R ² = 0.071	F=49.785***, 수정 R ² = 0.077

주: () 안의 수치는 t 값, ***는 0.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둘째로,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강한 자녀일수록 용돈 액수에 대해 만족해 하는 정

따라 변하고 있거나 추정 모형에 보통 선형 모형이나 로짓 모형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추정식에 따라 관찰수가 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OLS 추정을 행한다. 관찰수가 동일한 용돈 사용 액수 및 용돈만족도에 대한 연성 증후 추정에 대해 SUR 추정을 행한 결과 OLS 추정을 행한 경우에 비해 회귀계수는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같게 추정되었고 t값은 소숫점 이하 2자리에서 미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6> 및 <표 7> 추정식들의 잔차항들 간의 공분산이 0에 가까워 SUR 추정에 의한 교정이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Greene (1992) Chap. 33 및 Zellner (1962) 참조.

도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에 자녀가 받는 용돈의 크기는 기간중 자녀가 적정하게 쓸 액수를 사전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여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강한 자녀일수록 기간중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녀가 용돈을 추가로 요구할 때 부모가 추가 용돈 요구를 전액 들어주는 경우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지급해주는 경우들이 있게 되며, 따라서 연성성이 강한 자녀일수록 용돈 액수에 대해 더 큰 부족 또는 불만감을 느끼게 되는 통계적 관계가 관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7>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 같은 예측과 배치되지 않는다.

<표 7>에서 연성성E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형1에서 연성성E의 추정 계수는 -0.904로서 연성성이 높을수록 용돈 액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관계가 확인된다. 모형2에서 용돈 액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용돈 액수가 클수록 용돈 액수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는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그 비례 정도는 0에 가까운 값인 데 반해, 연성성E의 추정계수값은 -1.067로서 모형1에서보다 오히려 다소 커졌다.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용돈 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반면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적일수록 용돈에 대한 자녀의 만족도는 크게 줄어든다. 추정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며 변수들의 공동 설명력은 모형1에서는 0.034, 모형2에서는 0.047이다.

<표 7> 용돈 액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연성 증후의 추정

피설명변수는 서열 변수의 성격을 갖는 용돈 만족도(부족=1, 적당=2, 충분=3)임. <표 4>의 회귀모형에서 얻어진 연성성 추정치(연성성E)를 설명변수로 하여 보통 최소 자승 추정. 각 모형에는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수항은 0.0% 수준에서 유의. 관찰수 1161개.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모형1	모형2
연성성E	0.377	0.144	-0.904(-6.444)***	-1.067(-7.382)***
용돈 만족도	1.950	0.703		0.081(4.212)***
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F=41.522***, 수정 R ² =0.034 F=29.929***, 수정 R ² =0.047			

주: () 안의 수치는 t 값, ***는 0.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끝으로, 이 같은 연성 증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결과로 인해, 연성 증후가 다양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자녀일수록 용돈의 사용과 관련해 자신을 계획적이라기보

다는 즉흥적인 유형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표 8>의 추정 결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성성E의 추정계수치는 2.166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도 높다.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을 즉흥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표 8> 용돈 관리와 사용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나타나는 연성 증후의 추정

피설명변수는 이항 변수로서, 용돈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자기 평가(계획적인 편=0, 즉흥적인 편=1)임. <표 4>의 회귀모형에서 얻어진 연성성 추정치(연성성E)가 설명변수로서 이항 로짓 추정 모형에 투입, 관찰수 1166개.

변수명	추정계수	Wald 값	유의도
연성성E	2.166	171.156	0.000
통계적 적합도 및 설명력: $\chi^2=195.278^{***}$, Cox & Snell $R^2=0.154$, Nagelkerke $R^2=0.206$			

주: ***는 0.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IV.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부모와 자녀간의 용돈 수수를 둘러싼 2기 게임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 및 연성 예산제약 증후군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 및 연성 증후에 대한 실증적 검정을 행하였다. 추정 결과, 몇 개의 유의한 변수들로 자녀 용돈의 연성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연성성에 대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자녀의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 증후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는 자녀 용돈제약의 연성성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시사한다. 성별, 학교급,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가 용돈에 대해 훈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태도와 같은 변수들에 의해 용돈의 예산제약이 연성이 되는 확률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설명변수들을 성격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성별, 학교급,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 수준과 같은 변수들은 학생에게는 조사 시점에서 주어지 있는 변경 불가능한 환경 변수다. 이런 변수들은 한 학생의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일 확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조작 가능한 정책적 변수 또는 교육적 변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용돈을 주는 주기, 용돈을 누가 주는가, 자녀 용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녀에게 가정 형편을 이해시켜주는 행위 또는 동일하게 자녀가 가정 형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여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자녀의 저축 습관 그 어떤 것들도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또는 조작을 통해서 자녀 용돈제약의 연성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구나, 자녀의 용돈과 관련한 부모의 잦은 훈계와 간섭은 오히려 자녀의 연성성을 강화시키는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자녀 용돈의 예산제약이 지니는 연성성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통제가 쉽지 않은,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연성성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이 되는 사항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 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추가 지급 용돈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하며, 그로 인해 이론 모형에서의 α^* 값이 작아지고 그런 집의 자녀일수록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됨을 예측하였는데,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를 분명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아버지의 학력과 0.0% 유의수준에서 0.341이라는 스피어만 상관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0.0% 유의수준에서 0.649의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이 아니라 부모의 학력이 높은 가정의 자녀 용돈이 연성인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녀 용돈에 대한 가정교육은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히려, 자녀가 약정된 금액 이상으로 추가 용돈을 요구할 때 추가 지급되는 용돈이 부모에게 미치는 한계 비효용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적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 용돈이 연성성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됨을 추정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한 자녀가 가정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그 자녀는 절약형으로 또는 예산제약이 경성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용돈을 더 타서 쓰는 것이 우리 집 살림살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은 연성성을 설명

하는 유의한 변수로 추정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자녀의 인식 여부조차도 자녀의 추가적인 용돈 요구 행태 또는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정된 로짓 모형이 경성인 학생을 경성으로 옳게 분류하는 비율은 84.0%로 상당히 높지만, 연성인 학생을 연성으로 옳게 분류하는 비율은 37.0%로 낮다. 이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이 학생들의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인가 경성인가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서 부분적으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해 용돈 예산제약이 연성인지 혹은 경성인지로 학생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더 개량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용돈 행태에 대한 더욱 정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유형이 피고용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가내 아르바이트인지, 가내 아르바이트라면 자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사전에 정해 놓은 종류의 일을 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인지, 각 경우의 학생들에서 용돈 행태와 연성성에 어떤 차이가 날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녀 용돈 지도에 유의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미성년 학생들의 용돈 사용과 관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화의 핵심적 통로다. 이들의 용돈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및 이들의 용돈 행태를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한 솔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들이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용돈 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는 보고를 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논문은 예산제약의 연성성이라는 개념을 자녀 용돈 문제에 적용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예산제약의 연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녀 용돈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적 분석 결과는 자녀들의 용돈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및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이는 용돈 예산제약의 연성성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정교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 방안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막혀 있음을 뜻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Kornai가 창안한 유의한 경제학적 개념인 ‘연성 예산제약’을 처음으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확장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와 독창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동안 예산제약의 연성성과 그 증후 현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정부 대 기업, 은행 대 기업 등 조직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어 왔다. 부모와 자녀라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예산제약의 연성성 및 연성증후와 조직 대 조직 및 조직 대 개인간에서 나타나는 연성성 및 연성증후의 차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성 예산제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1. 권미화·이기춘, “청소년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2호, 2000, pp.175-190.
2.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교육실, 2003.
3. 김영신·강선자, “아동의 용돈관리행동이 구매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제20권, 1997, pp.57-86.
4. 김효정,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8호, 2004, pp.77-93.
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원, “2005년도 청소년 용돈관리 실태조사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2006.
6. 우지웅, “청소년 용돈의 연성 예산성과 그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7. 이기춘·권미화,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관련 요인의 이해,” 『소비문화·소비자행동연구』, 25, 2003.
8. 이은희·남수정,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소비와 용돈관리 실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4호, 2003, pp.157-171.
9. 이종원, 『계량경제학』, 박영사, 1994.
10. 장금옥, “용돈 통장 보유가 중고등학생의 용돈 관리와 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조권중(2002), “서울시 사회계층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 최호상,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2003.
13. 한국소비자보호원, “청소년의 소비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 1999.
14. Dewatripont, M. and E. Maskin, “Credit and Efficiency i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conom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2, No .4, 1995, pp.541-555.

15. Djankov, Simeon and Peter Murell, "Enterpris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A Quantitative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No. 3, 2002, pp.739-792.
16. Furnahm, Adrian, "The Saving and Spending Habits of Young Peopl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2, 1999, pp.677-697.
17. _____, "Parental Attitudes to Pocket Money/allowances for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2, 2001, pp.397-422.
18. Greene, William H. (1992), *Limdep User's Manual and Reference Guide Version 6.0*, Econometric Software, Inc..
19. John, Deborah R.,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A Retrospective Look at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Dec., 1999, pp.183-213.
20. Kidwell, Blair and Robert Turrisi, "An Examination of College Student Money Management Tendenc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5, 2004, pp.601-616.
21. Kornai, Janos,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s," *Econometrica*, Vol. 47, No. 4, 1979, pp.801-819.
22. _____,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Holland, 1980.
23. _____,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9, No. 1, 1986, pp.3-30.
24. _____ and Jorgen W. Weibull, "Paternalism, Buyers' and Sellers' Market," *Mathematical Social Sciences*, Vol. 6, No. 2, 1983, pp.153-169.
25. _____, "The Place of the Soft Budget Constraint Syndrome in Economic Theo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1998, pp.11-17.
26. _____, Eric Maskin, and Gerard Roland,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Working Paper, Harvard University, 2002.
27. Luigina, Caova, Anna M. Rattazi, and Paul Webley,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Saving Motiv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6, 2005, pp.21-34.
28. McNeal, James U., *Children as Consumers' Insights and Implications*, Lexington, Heath and Company, 1987.
29. Qian Yingyi, "A Theory of Shortage in Socialist Economies Based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1, 1994, pp.145-156.
30. Roland, Gerar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The MIT Press, 2000.
31. SPSS Inc., *SPSS Base 12.0 User's Guide*, SPSS INC., 2003.
32. Zellner,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57, 1962, pp.348-368.

〈부 록〉 추정 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수들의 설문지 응답 분포

평균은 설문 문항번호를 실수 값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수치다.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2; 학교급은 중학교가 1, 고등학교가 2;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3; 스스로 평가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하 1, 중하 2, 중중 3, 중상 4, 상 5; 부모의 혼계와 간섭 정도는 안 한다 1, 드물게 한다 2, 자주 한다 3; 용돈 액수는 2만원 미만 1, 2-4만원 2, 4-7만원 3, 7-10만원 4, 10-15만원 5, 15만원 이상 6; 용돈 크기에 대한 생각은 부족 1, 적당 2, 충분 3; 부모의 혼계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반성하는 태도 1, 잔소리로 흘려듣는 태도 2; 용돈을 더 타서 쓰는 것이 가계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의 인식은 준다고 인식 1, 안 준다고 인식 2; 용돈의 관리와 사용과 관련된 자기 평가는 계획적인 편 1, 즉흥적인 편 2; 용돈의 결산 여부는 안 한다 1, 한다 2로 처리.

설문 항목	답항	응답자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680	52.8	1.4716	0.49939
	여	607	47.2		
	계	1287	100.0		
학교급	중학교	589	45.8	1.7382	0.76508
	고등학교	698	54.2		
	계	1287	100.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45	11.3	1.6900	0.66301
	고졸	598	46.5		
	전문대졸 이상	544	42.3		
	계	1287	100.0		
가정의 경제수준	하	40	3.1	3.0085	0.78917
	중하	250	19.4		
	중중	714	55.5		
	중상	247	19.2		
	상	36	2.8		
계	1287	100.0			
부모의 혼계와 간섭 정도	하지 않는다	395	30.7	1.8695	0.68309
	드물게 한다	665	51.7		
	자주 한다	227	17.6		
	계	1287	100.0		
용돈 액수	2만원 미만	357	27.7	4.7941	1.08948
	2-4만원	513	39.9		
	4-7만원	291	22.6		
	7-10만원	64	5.0		
	10-15만원	45	3.5		
	15만원 이상	17	1.3		
계	1287	100.0			
용돈에 대한 만족도	부족하다	347	27.0	2.0427	0.70361
	적당하다	648	50.3		
	충분하다	292	22.7		
	계	1287	100.0		
혼계시 수용 태도	반성하게 된다	666	57.1	1.4288	0.49512
	잔소리로 듣는다	500	42.9		
	계	1166	100.0		
가계에 주는 영향	영향을 준다	731	56.8	1.4320	0.49555
	영향을 안 준다	556	43.2		
	계	1287	100.0		
자기 평가	계획적인 편	403	31.3	1.6869	0.46395
	즉흥적인 편	884	68.7		
	계	1287	100.0		
용돈의 결산 여부	안 한다	969	75.5	1.7553	0.43010
	한다	314	24.5		
	계	1283	100.0		

Children's Allowances and Soft Budget Constraints

Yun-Ho Lee* · Sung-Hyun Kim**

Abstract

This paper builds a formal model to analyze the softness of budget constraint of children's allowances and tests the related hypotheses empirically. This paper is novel because it applies the concept of soft budget constraint, for the first tim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that i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2-period theoretical game model between a parent and their child is set so to analyze the conditions that make her/his budget constraint of allowances soft. Hypothetical expectations of soft budget constraint syndromes are derived from the conditions. Then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are tested empirically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data which are obtained from a nationwide sampling and concerned with the behaviors of expenditure and management of allowance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mpirical outputs support the main theoretical expectations, and ensure that the phenomenon of soft budget constrains syndrome is not cured easily.

Key Words: allowances for children, soft budget constraints, soft budget constraints syndrom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Course,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